

## 雲石 趙寅永의 교유 양상과 墨溪山莊

김근태\*

<目次>

I. 서론	3.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은 忘形之交 - 趙秀三, 姜潛
II. 교유관계	4. 국경을 초월한 교유 - 劉喜海, 比丘林
1. 학문의 동반자 - 金魯敬·金正喜 부자와 成大中·成海應 부자	III. 19세기 雅集의 공간 墨溪山莊
2. 정계의 파트너 - 李止淵, 鄭元容	IV. 결론

###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19세기 조선의 勢道政治에서 한 축을 담당하였던 雲石 趙寅永이 교유한 인물과 교유 장소로 활용된 墨溪山莊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인영은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동시에 金石學에 조예가 깊은 학자이자 시문에도 능한 문학가이다. 그는 金正喜 및 成大中 父子와의 교유를 통해 性理學만을 추송하는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李止淵과는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하는 정계의 동반자로서 안동 김씨의 전횡을 막는 데 힘썼다. 아울러 趙秀三, 姜潛 등 중인 신분의 시인들과도 신분과 나이를 초월하여 詩友로 지내며,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젊은 시절 사절단의 일원으로 北京에 가서 淸나라의 금석학자인 劉喜海와 인연을 맺어 조선의 金石文을 청나라에 전파시켰다. 마지막으로 당시 北京에서 근무하던 比丘林이란 러시아 학자와

\* 강원대학교 강사 / neokkim@naver.com

도 교유하였는데, 두 사람의 교유는 현재 남아있는 기록으로 볼 때 조선 학자와 러시아 학자와의 교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인영이 여러 인물들과 교유하였던 장소인 墨溪山莊은 도성의 南山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풍양 조씨 가문의 별장인 동시에 여러 문인이나 관리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연회와 유희를 즐겼던 대표적인 도성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주제어】 趙寅永, 金石學, 勢道政治, 金正喜, 劉喜海, 比丘林, 墨溪山莊.

## I. 서론

안동 김씨 가문과 함께 19세기 세도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풍양 조씨 가문, 그 중에서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물이 石厓 趙萬永(1776~1846)과 雲石 趙寅永(1782~1850) 형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가운데 형인 조만영은 현전하는 문집이 없어 접근이 불가능하지만,<sup>1)</sup> 아우 조인영은 『雲石遺稿』라는 20권 10책의 문집을 남겼기에 정계활동 이외에 그의 사상이나 학문, 또는 문학세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접근이 가능하다. 조인영은 문과에 장원급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

1) 현재까지 조만영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언급과 평가만 남아 있다. 그가 글씨를 잘 썼다는 점과 오랫동안 병권을 장악하여 조씨 세도를 확고히 하였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정치 혁신을 할 수 있는 지위와 힘이 있었음에도 이를 도외시하여 결과적으로 조선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다는 비판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문과에 급제하였고, 書狀官의 신분으로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조인영을 비롯하여 교유하였던 여러 인물들의 문집에 그의 시에 차운한 시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시문에도 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수삼은 조만영의 시가 초기에는 ‘清麗溫雅 藻思穎脫’하였다가 중년 이후로는 ‘沉澁濃郁 蒼蔚老健’하여俗士들이 미칠 수 없는 경지라고 극찬하기도 하였다.(조수삼, 『石厓趙公週甲壽序』, 『秋齋集』 권8)

쳐 文衡을 역임하는 등 학문과 文翰 두 방면에서 모두 뛰어난 자질을 지녔던 인물이다.<sup>2)</sup>

그러나 현재까지 조인영에 대한 연구성과는 소략한 편이다. 조선 후기 세도정치를 연구한 역사학계와 정치학계의 여러 논저와 개론서에서 그의 정계활동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도이며, 조인영 개인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물은 학문과 정계활동만을 대상으로 한 한 편의 소논문만이 보고되어 있다.<sup>3)</sup>

필자는 정치적인 평가를 배제하고 시인으로서 조인영의 위상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그 선행 작업으로 먼저 본고에서는 조인영이 교유하였던 인물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교유장소로 많이 활용되었던 墨溪山莊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 II. 교유관계

조인영의 본관은 豐壤, 자는 羲卿, 호는 雲石, 시호는 文忠이다. 조부는 일본에 통신사로 갔다가 고구마 종자를 들여온 것으로 유명한 趙曦(1719~1777)이며, 부친은 이조판서를 역임한 趙鎭寬(1739~1808)이고, 형은 國舅로서 領敦寧府事에 오른 趙萬永이다.

조인영은 1782년 경기도 양근에서 태어나 1819년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간 후 유배나 좌천 등 정치적 부침을 한 번도 겪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상도와 전라도 관찰사를 비롯하여 몇몇 지

2) 尹定鉉은 『雲石遺稿』의 서문에서 조인영이 모든 산문 문체에 뛰어났고, 詩詞는 ‘뛰어나고 아름답지만 간략하고 깨끗하며[雋而潔]’ ‘화려하지만 힘이 있다[麗而不靡]’고 평가하였고, 김학성은 당시 문단의 宗匠이라고 평가하였다. 조인영은 스스로 “余平生拙於書 尤拙於詩.”(『追題求禮燕谷倉樓』의 서문, 『雲石遺稿』 권4)라고 하였지만 이는 겸양의 표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3) 김명숙, 「운석 조인영의 정치운명론」, 『朝鮮時代史學報』 11집, 1999.

방관을 역임하였지만 그 재임 기간이 짧았기에 한평생을 도성에서 지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그의 생애를 정리하는 작업은 생략한다.<sup>4)</sup>

國婚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집안의 배경으로 조인영이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네 번에 걸쳐 영의정에까지 올랐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풍양 조씨 가문은 선대부터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였으며, 영조 대에 趙文命의 딸이 孝章世子(眞宗으로 추숭)의 비로 간택되었고, 趙文命·顯命 형제를 비롯한 여러 인물이 고위관료로 활약한 덕분에 당시에 이미 대표적인 경화세족으로 성장하였다.<sup>5)</sup> 이러한 가문의 배경위에 1819년(순조 19) 조만영의 딸이 純祖의 세자였던 孝明世子(翼宗으로 追崇)의 비로 간택되었고, 효명세자의 대리청정이 실시되자 조만영이 이 조판서로서 어영대장을 겸임하면서 풍양 조씨 세도의 기초를 다졌다. 여기에 더하여 대리청정하던 효명세자가 등극하기도 전인 1833년(순조 30)에 승하하자, 純祖는 특별히 조인영에게 어린 세손을 輔導하라는 유촉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풍양 조씨의 가세는 더욱 번성하였다.

본 장에서는 막강한 권세를 지녔던 조인영이 교유한 인물들을 편의상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몇 개의 부류로 나누어 고찰해 보기로 한다.

4) 조인영의 정치적 이력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제공하는 『雲石遺稿』 해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5) 조인영도 대대로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자신의 가문을 자랑스럽게 여겨 언급한 기록이 있다. “自我十一世祖漢平君以下至夔兒 文科爲九世也.”(『永旻拈杜韻』의 주석, 『雲石遺稿』 권4) 조만영·인영 형제와 趙文命·顯命 형제는 모두 풍양 조씨 淮陽公派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혈연적인 관계는 비교적 멀다고 할 수 있고, 당색에서도 차이가 있다. 조인영의 13대조가 趙安平이고, 그의 동생이 趙開平인데, 趙文命·顯命 형제는 조개평의 9대손이다. 조안평의 직계는 漢平君派로, 조개평의 직계는 副司直派(豐壤君派)로 다시 나뉘는데, 숙종조에 노·소론으로 분화된 이후 전자는 노론, 후자는 소론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였다. 그러나 두 支派는 시조묘 성묘의 상례화와 족보 간행을 위해 서로간에 교류와 왕래가 활발하였다.(이훈, 「동해 조종진의 시문학 연구」,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2015 참조)

## 1. 학문의 동반자 - 金魯敬·金正喜 부자와 成大中·成海應 부자

주지하듯이 金正喜(1786~1856)는 조선의 實學과 淸의 학풍을 융화시켜 經學, 金石學, 佛敎學 등에서 一家를 이루었고, 역대 서예가들의 장점을 취하여 독창적인 秋史體를 창안한 조선 후기 대표적인 학자이다. 조인영과는 同榜이라는 인연이 있는데,<sup>6)</sup> 관직에 나아가기 전인 1816년 가을에 김정희는 北漢山 碑峯에 올라 無學大師의 枉尋碑 혹은 글자가 없는 沒字碑로만 알려져 있던 비석을 탁본하여 이것이 眞興王巡狩碑의 하나임을 밝히고, 자신이 연구한 내용과 풀리지 않는 의문점 및 연구 결과에 대해 조인영에게 자문을 구하는 서신을 보냈다.<sup>7)</sup> 이듬해인 1817년 6월, 중국에서 돌아온 조인영은 김정희와 함께 비봉을 찾아 김정희가 미처 판독하지 못한 글자를 함께 판독하여 眞興王巡狩碑임을 확정하고 그 간의 경과를 다음과 같은 글로 남겼다.

북한산 남쪽에 僧伽寺가 있는데, 그 위 봉우리를 碑峰이라 부른다. 도성의 雲從街에서 비스듬히 북쪽으로 봉우리 꼭대기에 기둥 하나가 우뚝 하여 마치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에서는 고려의 스님인 道詵의 비석인데, 지금은 글자가 없다고 전해온다. 병자년(1816) 가을에 秋史 金元春이 내게 “제가 비봉에 올라가보니 비석에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은 신라 진흥왕의 비석이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미칠 듯이 기뻐서 그와 함께 찾아가보기로 약속했다. 이듬해 6월 8일에 약속을 실천하게 되었다. 工人이 탁본할 도구를 갖추고 따라왔다. … 드디어 공인에게 그것을 탁본하게 하여 자세히 審定해보니 완전히 없어져 억지로 해독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점과 획이 남아 있어 판별할 수 있거나 확실하여 의심할 바가 없는 글자는 무릇 92자였다. ‘眞興王’ 3자, ‘巡狩’ 2자, ‘南川’ 2자는 모두 실제 역사책에서 증명할 수 있었고, 역사책의 글과도 들어맞았다. … 비문에 ‘眞興’이라는 두 글자가 있는데, 智證王本

6) 1819년(순조 19) 식년문과에 조인영이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김정희는 丙科 8위로 입격하였다.

7) 김정희, 『興趙雲石寅永』, 『阮堂全集』 권2.

紀에 따르면 신라의 謚法은 지증왕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던 바, 지증왕 뒤로 法興王을 거쳐 진흥왕에 이르게 되므로 진흥왕 때에는 그 시호를 응당 미리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진흥왕 뒤에 세운 것 같다. … 신라와 고려의 碑目을 두루 살펴보았지만 참으로 上乘이었다. 그러나 『여지승람』과 『북한지』 등 여러 책에는 모두 그것을 빠트렸으니 어찌된 일인가. 이에 비석의 좌측에 이름을 새기고 날짜를 기록하였다.<sup>8)</sup>

비석이 세워진 지 천 여년이 지나 당시 조선의 젊은 두 석학인 김정희와 조인영이 비석의 진면목을 판별해 낸 역사적인 순간으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비석의 측면에 “此新羅眞興王巡狩之碑 丙子七月金正喜金敬淵來讀[이는 신라 진흥왕의 순수비이다. 병자년 7월에 김정희와 김경연이 와서 판독하였다.]”와 “丁丑六月八日 金正喜趙寅永來審定殘字六十八字[정축년 6월 8일에 김정희와 조인영이 와서 남은 글자 68자를 살펴 확정했다.]”라는 기록을 새겨넣기도 하였다.<sup>9)</sup>

조인영과 김정희의 친분은 김정희의 부친인 金魯敬(1766~1837)으로 소급된다. 경주 김씨인 김노경은 조만영의 딸이 세자빈의 三揀擇 물망에 올랐을 때, 영조말 贓汚罪로 유배되었던 趙曦의 증손녀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그런데 김노경의 이 행위는 다른 정치세력의 반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였고, 이후 경주 김씨인 김노경·김정희 부자와 풍양 조씨인 조만영·조인영 형제는 새로운 정치적 파트너로서 더욱 밀착하게 되었다.<sup>10)</sup>

8) 조인영, 「僧伽寺訪碑記」, 『雲石遺稿』 권10, “北漢之南 有僧伽寺 其上峰曰碑峰 自京師雲從街迤北 見峰巖一柱兀然如人立 俗傳麗僧道說碑 今沒字云 歲丙子秋 秋史金元春語余曰 吾上碑峰 碑有殘字 實新羅眞興王碑也 余聞之狂喜 約與之共尋 越明年六月八日 始踐之 工執墨拓具以從 … 遂令工搨之 細加審定 除全缺不可強解 餘點畫可辨確然無疑者 凡九十有二字 如眞興王三字 巡狩二字 南川二字 皆實事可證 而與史文經緯者也 … 歷數羅麗碑目 洵爲上乘 然輿地勝覽北漢誌諸書 並闕之 何哉 乃鐫名於碑之左側 以識月日”

9) 김정희, 「眞興二碑攷」, 『阮堂全集』 권1.

10) 김명숙, 앞의 논문, p.151.

이후 안동 김씨 출신인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던 1840년(헌종 6)에 조인영을 중심으로 반 안동 김씨 세력이 결집하자, 안동 김씨 정권은 10년전에 발발했던 尹尙度 옥사를 다시 제기하며 정치적인 박해를 가해 이미 亡人이었던 김노경은 관작이 추탈되었고, 김정희는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사형에 처할 위기에 몰렸다. 이때 조인영의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김정희는 죽음을 면한 채 제주도로 유배되었고,<sup>11)</sup> 이후 9년간의 제주 유배생활에서 해배되어 돌아왔지만 얼마 후 조인영이 세상을 떠나 두 사람의 교유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김정희와의 교유를 통해 조인영은 젊은 시절부터 금석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래 인용한 시는 춘천의 선영에 성묘를 가다가 지은 시이다.

古碑穹然立  
風雨千餘載  
又有一片石  
斷截埋荒穢  
摩挲不忍去  
何人銘其背

중략

從今復經劫  
存者若掩廢  
寒山無共語  
何由覽前代

후략

옛 비석 우뚝하니 서 있는데  
비바람 맞은 지 천여 년.  
또 하나의 돌 조각이  
부러져서 풀숲에 묻혀 있네.  
어루만지며 차마 떠나지 못하니  
어느 사람이 뒷면에 명문을 새겼나.

지금부터 다시 억겁의 세월이 지나면  
남아 있는 것도 또한 안보이거나 없어지겠지.  
울썩년스러운 산도 또한 말이 없을 터이니  
어떻게 전대의 일을 볼 수 있을까.<sup>12)</sup>

제목의 주석에 “하나는 이자현의 유희비인데 닳았고, 하나는 익재의

11) 김정희를 변론하는 상소문인 「請鞫囚金正喜酌處筭」가 『雲石遺稿』 권6에 수록되어 있다. 윤상도 옥사 사건에 대해서는 안외순, 「추사 김정희와 윤상도 옥사, 그리고 정치권력」, 『東方學』 28집, 2013 참조.

12) 조인영, 「古碑」, 『雲石遺稿』 권1.

장경비인데 부러졌다.[一希夷子遺墟碑 剝, 一益齋藏經碑 折.]”라는 기록이 부기되어 있어 춘천 청평사 부근에 있던 비석임을 알 수 있다. 금석학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던 조인영은 방치되어 있는 비석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에,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古碑를 보며 느낀 안타까움과 그나마 남아 있는 지금의 비석도 세월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을 우려하는 심정을 위와 같이 시로 표출한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금석학에 대한 관심은 중국학자와의 교류로도 이어진다.

다음으로 成大中, 成海應 부자와의 교류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듯이 성대중(1732~1809)은 서얼의 신분이었으나 아들 성해웅과 함께 뛰어난 학문적 재능과 탁월한 文才를 바탕으로 정조의 총애를 받아 많은 저작과 국가의 편찬사업에 종사한 인물이다. 1763년 조인영의 조부인 趙礮이 正使의 자격으로 일본에 갈 때 書記의 신분으로 함께 수행한 인연을 통해 풍양 조씨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일본 사행길에 조선인 살해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성대중의 결단력과 의지에 대해 조엄이 높이 평가하였고,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정사와 서기 이상의 친분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한다.<sup>13)</sup>

1774년 조엄이 평안감사 시절에 탐학했다는 죄목으로 무고를 당했을 때, 당시 운산군수였던 성대중이 조엄의 무고를 적극 변론하면서 두 집안의 우의는 더욱 두터워지게 되었다.<sup>14)</sup> 조엄의 아들 趙鎭寬은 부친과 친분이 깊었던 성대중에게 『海槎日記』의 서문을 부탁하였고, 성대중의 아들인 성해웅(1760~1839)은 부친의 문집인 『靑城集』의 서문을 조인영에게 부탁할 정도로 두 집안의 관계는 대를 이어 돈독하였다.

13) 손혜리, 「靑城 成大中의 文學活動과 文學論」,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0, pp.15-16.

14) 성해웅, 「先府君行狀」, 『研經齋全集』 권10, “癸巳再爲持平 甲午陞掌令 出爲雲山郡守 嘗沿鴨綠江 遍遊塞上諸邑 悉其山川謠俗而歸 著述甚富 時濟菴趙公爲權臣所陷 竄渭原 事下道臣而查究 禍將不測 府君傷其寃 往見道臣 欲爲之周章而不得 及趙公被拿而還 凡所以資行者 府君多爲之辦”

성해응은 1815년 조인영이 자제군관의 자격으로 청나라에 갈 때 전송하는 글을 써 주었다.<sup>15)</sup> 성해응은 이 글에서 청나라의 학문이 고증학 일변도로 흘러 각종 경학에 대한 논쟁에 휩싸여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고증학은 지엽 말단에 속하는 학문이니 당장의 급무가 아니라고 조언하였다. 또한 漢學과 宋學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둘을 절충하는 학문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정희가 스승인 옹방강의 ‘漢宋不分論’을 받아들여 학문의 기본으로 삼았고, 성해응이 ‘漢宋折衷論’을 강조하였기에 두 사람과 교유한 조인영의 학문관도 이러한 관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sup>16)</sup>

이외에도 조인영은 淇水와 薩水가 각각 대동강과 청천강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에 의문을 품어 성해응에게 질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성해응은 지리에 대한 관심은 학자가 급선무로 삼을 것은 못되지만 博學이라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전제하고, 역사서와 지리서의 기록을 근거로 그것이 옳은 견해를 밝히는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다.<sup>17)</sup> 또한 조인영이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할 때는 安義縣에 거주하는 명나라 유민들에 대한 조사를 부탁하기도 하였거니와,<sup>18)</sup> 두 사람이 주고받은 시가 각자의 문집에 몇 수씩 수록되어 있다.

결국 조인영은 김정희, 성대중 부자와의 교유를 통해 금석학 등 博學을 추구하게 되었고, 성리학만을 신봉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훈고학적 실증주의를 아우르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지니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밖에 당시 뛰어난 학자인 黃胤錫, 洪直弼과 교유한 기록이 단편적

15) 성해응, 「送趙雲石義卿遊燕序」, 『研經齋全集』 권13.

16) 김명숙, 앞의 논문, pp.153-156.

17) 성해응, 「答趙雲石義卿書」의 1편, 『研經齋全集』 권13. 『운석유고』에는 서간문이 한 편도 수록되어 있지 않아 조인영의 견해를 알 수 없기에 성해응의 서간을 통해 역으로 유추하였다.

18) 성해응, 「抵嶺伯書」, 『研經齋全集』 권32. 성해응은 이 당시 명나라 유민에 대해 관심이 많아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보충하여 『皇明遺民傳』을 지었다.

으로 보이지만 자료가 부족하여 자세한 교유는 살필 수가 없다.

## 2. 정계의 파트너 - 李止淵, 鄭元容

李止淵(1777~1841)의 본관은全州, 자는 景進, 호는 希谷이다. 세종의 다섯째 아들 廣平大君 李璵의 후손으로, 순조 초에 문과에 급제한 후 경상도 관찰사, 한성 판윤, 호조판서 등을 거쳐 우의정까지 역임한 문신이다.<sup>19)</sup>

조인영과 이지연의 친분은 선대의 인연으로 시작되었는데, 조인영의 친고모가 전주 이씨인 李養遂에게 출가하였으니 바로 이지연의 從祖母이다. 선대부터 인척관계로 맺어진 데다가 이지연의 아들인 李寅嵩은 조만영의 딸을, 이지연의 동생인 李晦淵의 아들 李寅禹는 조인영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두 집안은 더욱 밀접한 사이가 되었다.<sup>20)</sup> 『운석유고』에는 20대 초반 젊은 시절부터 두 사람이 주고받은 시가 수록되어 있다.

1803년 22살의 조인영은 李止淵과 함께 백운산과 설악산을 유람하였고, 이때 서로 수창한 시를 별도로 『雲雪錄』으로 엮기도 하였거니와,<sup>21)</sup> 1833년(순조 33)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는 이지연을 전송하는 시와<sup>22)</sup> 이지연의 회갑을 하례하는 시를 각각 짓기도 하였다.<sup>23)</sup>

19) 국사편찬위원회에 이지연의 문집인 『希谷遺稿』가 유일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20) 두 집안의 인척 관계는 후대까지 이어져 조인영의 조카인 趙秉鉉은 이지연의 동생인 이회연의 딸을 며느리로 삼기도 하였다.(『풍양조씨세보』 참조)

21) 『雲雪錄』은 현재 국도와 규장각에 각각 소장되어 있는데, 규장각 소장본에는 조만영의 詩評이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동학인 이훈 선생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22) 조인영, 「送李希谷入燕」, 『雲石遺稿』 권3.

23) 조인영, 「謹賀李希谷周甲晬席」, 『雲石遺稿』 권3. 이 시의 서문에 조만영과의 후의를 기록하기도 하였다.(歲丁酉季春之五日 卽大司農希谷李公周甲晬辰也 公於去年 因吾伯氏石厓公甲日 有壽詩一律 今吾伯氏仍步其韻酬之 以公與

조인영이 노년에 지은 아래의 시에서 두 사람의 공통된 처세관을 엿볼 수 있다.

吾亦城東買碧岑 梅將結實柳成林 禽魚有約空懸夢 鍾鼎無功枉負心 浮世已知如水淡 明時不願入山深 祗應釋重投閒日 辦一輕輿意到尋	나 또한 성 동쪽에 푸른 산을 사 놓았는데 매실이 맺혀가고 버드나무는 숲을 이루었네. 산새, 물고기와 노닐겠다는 기약은 헛되이 꿈만 꾸고 고관의 신분으로 공적도 없어 마음속 기약을 저버렸네. 부질없는 세상사 물처럼 사라질 것을 이미 알지만 밝은 세상에서는 깊은 산속에 들기를 원하지 않노라. 다만 마땅히 중임을 벗어던지고 한가한 날이 되면 가벼운 수레 하나 준비하여 뜻에 맞도록 찾아가리라. <sup>24)</sup>
--	--

위의 시는 이지연의 별장인 鹿墅를 떠 올리며 지은 시로, 관직을 벗어 던지고 자연에 묻혀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군주를 보좌하여 정사를 돌볼 때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 시의 첫 수에서는 “몸이 쇠하여 관직을 그만두려는 마음을 먹었지만, 국은이 중하니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찌 잊으랴.[身衰縱抱休官計, 恩重寧忘戀關心.]”라고도 하였고, 세 번째 수에서는 “우습구나! 이 늙은이는 이렇게 좋은 곳 버려두고, 백성 걱정이 병인 양 날마다 찾아오는 것이.[堪笑此翁拋此境, 民憂如病日相尋.]”라고 하여 임금에 대한 애정과 백성에 대한 걱정을 하루라도 잊을 수가 없어 정계에 남을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공통된 현실을 직시하였다.

두 사람은 정계에 진출한 후에도 정치적 파트너로서 안동 김씨 세력의 전횡을 견제하는데 함께 힘을 쏟았다. 현종 초기 정국은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을 기반으로 하는 안동 김씨와 순조의 遺囑을 명분으로 하는 풍양 조씨 사이에 일시적이거나 협력과 공조체제가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안동 김씨인 金祖根의 딸이 현종의 비로 간택되면서 안동 김씨가 다

吾伯氏 德業之隆 福履之厚 乃有此壽考 頌禱之一贈一答 甚盛舉也.)

24) 조인영, 「憶鹿墅【李希谷別業】」 3수 가운데 두 번째 작품, 『雲石遺稿』 권4.

시 정권을 주도하게 되었고, 이에 두 사람은 斥邪를 내세워 반전을 꾀했다. 1839년(현종 5) 이들은 西學과 西教를 동일시하면서, 천주교에 대해 온정적이었던 대왕대비 김씨의 퇴진을 주장하고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유연히 대처하였던 안동 김씨 세력을 비판하며, ‘衛正을 위한 斥邪’라는 公論을 이끌어 내어 천주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을 역사에서는 己亥邪獄, 또는 己亥迫害라고 부른다. 천주교 박해는 당시 獨相이었던 이지연이 우의정의 신분으로 주도하여 프랑스 신부 3명을 비롯하여 수많은 천주교인들을 처형하였고, 이후 조인영은 「斥邪論音」을 지어 천주교 박해에 대한 명분을 세우고, 이지연의 뒤를 이어 우의정에 취임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결국 이지연은 척사 정책과 천주교인 박해를 통해 조인영이 안동 김씨를 누르고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준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정국 주도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듯이 안동 김씨가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일으킨 尹尙度의 옥사에 연루되어 이지연은 동생인 李紀淵과 함께 翼宗의 죄인으로 몰려 유배되었고, 조인영의 적극적인 구명활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배지에서 삶을 마쳤다.<sup>25)</sup>

다음으로 鄭元容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鄭元容(1783~1873)의 본관은 東萊, 자는 善之, 호는 經山으로, 영의정을 지낸 鄭太和의 6세손이다. 90세까지 장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1802년 문과에 급제한 후 순조와 헌종, 철종, 고종 등 4대 왕에 걸쳐 72년간 관직생활을 하였고, 여섯 차례 영의정을 지냈을 정도로 조선 전체를 통틀어 가장 현달했던 문신 가운데 한 명이다. 관직생활을 함에 있어 검소함과 청렴함을 본분으로 삼았고 처세술에도 능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데, 조인영은 사람들이 모두 그를 淑人君子라고 부른다고 하여 공평하고 균

25) 조인영과 이지연의 정계에서의 활동상황은 김명숙의 앞의 논문에서 거론한 내용을 정리하고 몇몇 사실을 추가하였다.

등하게 남을 대하는 인품을 칭송하였다.<sup>26)</sup>

정원용은 원래 순조부터 철종까지 안동 김씨 세도 정권에서 두뇌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처세술에 능하였다는 평가대로 조만영·인영 형제와도 친분이 두터웠다. 1828년 조인영이 원주 선영에 성묘하러 갔을 때 당시 강원도 관찰사였던 정원용은 선영까지 직접 찾아와 함께 시를 짓기도 하였다. 이 시에서 조인영은 “관찰사께서 직접 몸을 굽혀 찾아 주시니, 무덤의 송백도 갑자기 광채를 발하네. 이번 성묘에서 때마침 관찰사와도 만나게 되었으니, 관아에 송사 문건이 적음을 오늘에야 알겠노라. [按使檐帷能自屈, 墓門松栢忽生輝. 此行適與巡旌會, 今日方知訟牒稀.]”<sup>27)</sup> 라고 하여 선영을 찾아준 데 대한 감사함과 정사를 잘 처리하는 업무능력을 치하하였고, 정원용도 “지금 세상에서는 그대처럼 마음에 맞는 이가 적고, 타향이라 한 해가 다 되도록 손님을 보는 것이 드물구나. [會心今世如君少, 經歲殊方見客稀.]”<sup>28)</sup>라고 하여 객지에서 벗을 만난 즐거움과 두 사람의 의기가 맞음을 노래하였다.

1838년(헌종 4년) 봄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함경도 永興의 璿源殿에 봉안하는 의식을 거행할 때 두 사람은 실무를 맡아 함께 다녀오면서 서로 시를 수창하였다.<sup>29)</sup> 또한 1843년 정원용의 회갑을 맞아 조인영은 그의 겸손함과 검소함, 학덕이 모두 뛰어난을 칭송하는 글을 써 주었고,<sup>30)</sup> 몇 해가 지나 정원용은 歐陽脩가 맛 좋은 물로 유명한 惠山泉을

26) 조인영, 「經山鄭相國元容周甲壽序」, 『雲石遺稿』 권9. ‘淑人君子’는 『詩經』 「鴈鳩」에 나오는 구절로, 공평하고 균등하게 남을 대하는 이를 칭송하는 말이다.

27) 조인영, 「省原阡 按使鄭經山元容見訪 翌日往謝 遂登蓬萊閣 拈韻共賦」 첫 번째 작품의 함련과 경련, 『雲石遺稿』 권2.

28) 정원용, 「贈雲石趙直學寅永敬岡榮省之行」의 경련, 『經山集』 권2.

29) 조인영, 「太祖御眞 移摸告成 將還安于永興濬源殿 大宗伯經山鄭公 寔陪往之 賤臣亦忝敦匠 班送于東郊 鄭公強要驢章 遂書此 因驛遞奉寄」, 『雲石遺稿』 권3; 정원용, 「戊戌仲春 以禮判陪太祖御眞 詣永興濬源殿 次雲石太史韻」, 『經山集』 권3.

30) 조인영, 「經山鄭相國元容周甲壽序」, 『雲石遺稿』 권9.

당시 최고의 서예가인 蔡君謨에게 보내 주었던 고사를 따라 새로 세운 花樹樓 아래의 우물물을 길어 시와 함께 보내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하였다.<sup>31)</sup>

1845년 관직에서 은퇴한 정원용이 남산의 북쪽 會賢坊 부근에 花樹樓라는 누각을 세우자, 조인영은 정원용이 사치를 부린 것이 아니라 친족들과 함께 모이기 위해 지은 누각이라는 요지의 기문을 직접 지어 주었고,<sup>32)</sup> 가을에는 權敦仁 등 세 명의 재상과 함께 이 누각을 직접 찾아가 요양차 장남인 鄭基世의 임소인 成川으로 가는 정원용을 전송하기도 하였다.<sup>33)</sup>

이밖에 정원용의 朝服이 너무 낡아 헤진 것을 보고는 새로운 조복을 만들어 선물하기도 하였고,<sup>34)</sup> 두 사람이 聯句를 짓기도 하였거니와,<sup>35)</sup> 정원용과 그의 아들 정기세가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 각각 전송하는 시를 비롯하여 두 사람이 주고받은 시가 각자의 문집에 여러 편 수록되어 있어 두 사람의 끈끈한 우애를 확인시켜 준다.

이외에도 당시 정계에서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였던 李潏(1769~1826)와 수창한 시가 몇 편 보인다. 특히 조인영은 명나라 말기에 陳仁錫이 명나라 문인들의 작품을 초집한 『明文奇賞』을 이로에게 빌려주면서 화답을 바라는 장편의 시를 보내기도 하였다.<sup>36)</sup> 『明文奇賞』은 현재 규장각과 장서각 등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조선 후

31) 조인영, 「謝鄭經山相公汲惠花樹樓下石泉 并序」, 『雲石遺稿』 권4.

32) 조인영, 「花樹樓記」, 『雲石遺稿』 권10.

33) 조인영, 「季秋中旬 同權彝齋·金柱下道喜·朴方壺·晦壽三相公 集經山鄭公之花樹樓 送主人閣下就養于成川府衙」, 『雲石遺稿』 권4.

34) 尹滋惠, 「朝鮮國大臣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原任奎章閣提學文忠鄭公行狀」, 『經山集』 附錄 권2, “一朝服三十年渝弊甚 甲辰 公以正使相舟梁禮 雲石趙相公寅永製朝服 贈之 曰非爲華也 重其儀也 聞者傳之爲美事.”

35) 조인영, 「閣楹特磬聯句 同鄭經山·趙心菴作」, 『雲石遺稿』 권3; 「聚珍聯句 同鄭經山·趙心菴·金松石學性作」, 『雲石遺稿』 권3.

36) 조인영, 「以明文奇賞 奉借李可用 仍呈長句乞和」, 『雲石遺稿』 권1.

기 연행사절단을 통해 조선에 많이 유입되어 산문 학습서로서의 역할을 하였다.<sup>37)</sup> 조인영이 보낸 장편의 시를 통해 그가 젊은 시절부터 명나라 문인유파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그의 깊은 문학적 소양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李止淵 형제와 함께 안동 김씨 세력을 견제하는 데 앞장선 안동 권씨 權敦仁(1783~1859)과도 긴밀한 친분이 있었지만 그의 문집이 현재 확인이 되지 않기에 자세한 내용을 살필 수가 없다.

### 3.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은 忘形之交 - 趙秀三, 姜潛

趙秀三(1762~1849)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여항시인으로, 金正喜·金命喜 형제, 趙萬永·趙寅永 형제, 李晩用 등 당시의 쟁쟁한 사대부와 친하게 지낸 인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sup>38)</sup> 그는 중국을 여섯 번 다녀온 것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를 빠지지 않고 유람하며 한평생 시문을 창작한 전형적인 시인이다. 그가 공식적인 관직 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도 이와 같이 유람과 시문 창작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풍양 조씨 일문의 직간접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풍양 조씨 일문이 서얼 등 중인 계층과 교유를 한 사례는 이미 전례가 있었다. 영조 조에 趙文命의 아들이자 孝純王后의 오빠인 趙載浩(1702~1762)는 조카인 趙宜鎭·維鎭 형제, 李鳳煥, 李命啓, 南玉, 蔡希範, 洪禹弼 등과 함께 梅社를 조직하여 시를 수창하며 교유하였는데, 이 詩社에 참가한 인물 가운데 풍양 조씨 일문을 제외하면 모두 서얼 출신이

37) 구슬아, 「조선 후기 문인들이 明代 文壇 경향을 파악하는 한 방법: 明代 散文選集 『明文奇賞』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8권, 2013. 참조.

38) 조수삼에 대해서는 강명관, 윤재민 교수의 학위 논문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물이 보고되어 있다. 최근 김영죽의 학위논문(「秋齋 趙秀三의 燕行詩와 外夷竹枝詞」,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8)을 비롯한 일련의 연구물에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성과가 수록되어 있다.

었다.<sup>39)</sup>

조수삼이 풍양 조씨와 교유하게 된 계기는 趙鎭寬(1739~1808)과의 인연에서 시작되었는데,<sup>40)</sup> 그의 두 아들인 조만영·인영 형제와도 어린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sup>41)</sup> 조만영의 죽음을 애도하는 輓詩에서 “자주 창고를 열어 굶주린 선비에게 나눠 주셨고, 때때로 임금의 하사품을 곤궁한 이에게 보내주셨지.[數出廩餘餽餓士, 時分君賜餽窮生.]”<sup>42)</sup>라고 직접 조만영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음을 고백하기도 하였고,<sup>43)</sup> 노년에는 조만영의 집에 머물며 새해를 맞이하기도 하였다.<sup>44)</sup>

또한 조수삼은 조만영과 조인영이 공무차 출장을 갈 때나 지방관으로 부임할 때면 參軍이나 書記의 임시 직책을 맡아 자주 수행하였다.<sup>45)</sup> 1818년에는 趙萬永을, 1829년에는 趙秉龜를 수행하여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거니와, 1825년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조인영의 記室參軍이 되어 경상도 각 지역을,<sup>46)</sup> 1829년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는 조인영

39) 조재호의 행적과 梅社의 활동에 대해서는 심경호, 「당벌의 장에 편 매화 - 조재호와 『매사오영』」, 『한국한시연구』 4권, 1996; 신익철, 「梅社 동인의 매화시 창작과 비평 - 18세기 한시 비평의 일단」, 『한국문학연구』 3집, 2002 참조.

40) 조만영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사에서, “옛날 가정(조진관의 호) 노대인께서, 세 번 물으시더니 나를 막하의 빈객이라 부르셨지.[粵昔柯汀老大人, 三言呼我慕中賓]”라는 표현이 나온다. 조수삼, 「輓豐恩府院君石厓趙忠敬公」 12수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의 수련, 『秋齋集』 권6.

41) “愛我大耋如黃口 見公弱冠今白首”(조수삼, 「呈雲石趙公」의 1~2구, 『秋齋集』 권5.)

42) 조수삼, 「輓豐恩府院君石厓趙忠敬公」 두 번째 작품의 경련, 『秋齋集』 권6.

43) 조수삼이 82살인 1844년 설달 그림에 조인영은 3천전의 돈을 조수삼에게 보내주기도 하였다.(조수삼이 쓴 「甲辰除夕」 4구의 주석에 “雲石相公饋錢三千”이란 기록이 있다. 조수삼은 조인영이 보내준 돈을 ‘買痴錢’이란 재미난 표현을 사용하였다.)

44) 조수삼, 「石厓宅守歲」, 『秋齋集』 권6.

45) 조수삼, 「陪石厓趙尙書點漕之行 泛船拈韻」, 「陪石厓趙公再次點漕」, 『秋齋集』 권5.

을 따라 호남에 머물며 각각 수행하였다. 조인영의 입장에서는 실무에 밝고 시문에 능한 인재와 동행하여 업무의 수월성을 올리는 동시에 시를 수창하며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되었고, 조수삼에게는 전국 각지의 명승지를 유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공무를 떠나서도 계속 되었으니, 1832년 9월에는 東巖에 있는 풍양 조씨의 別墅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하였고, 조수삼은 시재를 발휘하여 참가자 각자에게 써 준 시와 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조만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sup>47)</sup> 또한 조인영의 50세 생일을 맞아 조인영의 건강을 걱정하는 글을 써 주기도 하는 등, 두 사람이 주고받은 시가 각자의 문집에 다수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서얼 출신 문인인 姜潛과의 교유를 살펴본다.

姜潛(1807~1858)의 본관은 晉州, 자는 進汝, 호는 對山으로, 詩書畫 三絶로 유명한 姜世晷의 증손자이다. 증조부의 기질을 이어받아 시서화에 모두 뛰어났지만 부친 姜彝大가 庶出이었기에 庶族이라는 한계로 인해 크게 현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三檢書로 일컬어지던 이덕무·박제가·유득공을 이을 만한 재목이라는 평가를 받는 등 당시 사대부 문인들에게도 그 능력을 인정받았고,<sup>48)</sup> 특히 조수삼과는 나이를 초월한 교유로 유명하다.<sup>49)</sup>

46) 조수삼, 「寄劉燕亭喜海書」, 『秋齋集』 권8, “昨年雲石公拜嶺南觀察使 謬辟秀三爲記室參軍矣”

47) 조수삼, 「壬辰暮秋 和雲石相公與諸公作錢酒之會於東巖 時在座八人 而石崖公不能從焉 庸老杜秋興八首韻賦詩分屬 各要和章」, 『秋齋集』 권5. 강진의 문집에도 이날 쓴 시가 수록되어 있다.

48) 강진의 생애와 시에 대해서는 김영죽의 「對山 姜潛의 삶과 詩·檢書官 및 外職시절의 시를 중심으로」(『漢文古典研究』 26집, 2013) 및 「19세기 檢書官 對山 姜潛 詩자료에 관하여 -자료검토와 교유관계를 중심으로-」(『韓國漢文學研究』 52권, 2013) 두 편의 논문에 자세하다. 특히 두 번째 논문에 풍양 조씨 일가와 강진의 교유 양상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다.

49) 김영죽은 두 사람의 교유를 忘形之交라고 하였는데, (김영죽, 「秋齋 趙秀三, 對山 姜潛, 冬郎 韓致元의 詩로 맺은 忘形之交」, 『漢文古典研究』 31집,

강진은 1831년 호조판서였던 조만영이 漕運을 점검하기 위해 출장을 갈 때 25살의 나이로 조수삼과 함께 수행하였고,<sup>50)</sup> 27살인 1833년 가을에 進香正使 李止淵의 수행원으로 燕行을 다녀올 정도로 젊은 시절부터 조인영 측근에게 인정을 받았다.<sup>51)</sup> 조인영은 연행을 가는 강진을 전송하는 시를 써 주면서, “이번에 가면 청인에게 알려질 것임을 알겠거니, 청인이 대산을 만나게 됨이 나도 기쁘구나.[此行知爲燕人見, 我喜燕人見對山.]”<sup>52)</sup>라고 하여 강진의 뛰어난 능력은 청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젊은 강진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던 조인영과 조만영의 주선에 힘입어 1837년 강진은 奎章閣 檢書官으로 발탁되었고,<sup>53)</sup> 1842년 가을에 五臺山 史庫의 曝曬 임무를 띠고 가는 조만영을 수행하여 金剛山 일대를 유람하면서 같이 갔던 趙秉夔, 李審渠, 任翼常, 洪義福 등과 함께 지은 시를 4卷으로 정리하기도 하였다.<sup>54)</sup> 조인영이 이지연, 권돈인, 조수삼 등 친한 인사들과 연회를 할 때 비교적 어린 나이인 강진도 연회의 중요한 일원이었고, 세검정에서 피서를 할 때 강진이 같이 가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읊기도 하였거니와,<sup>55)</sup> 1845년 영의정에서 물러난 조인영이 해서지방을 유람할 때도 강진은 수행하였다.

2015) 이는 조인영과의 교유에도 해당될 것이다.

50) 강진, 「雨中陪石厓趙公萬永度支點漕之行 乘流拈韻 李黃庭台升·趙秋齋秀三偕焉」, 『對山集』 권1.(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51) 강진, 「隨希谷李尙書入燕」, 『對山集』 권1.

52) 조인영, 「送姜對山入燕」, 『雲石遺稿』 권3.

53) “趙雲石公一見而深愛 亟稱以當世絕調 朝夕於左右爲之吹噓 遂選入秘閣爲檢書官”(김학성, 「對山集 序文」) 조인영이 강진을 지목하며, “규장각에 근무하는 이들 중에 함께 교류할만한 자가 있는데, 그대는 아는가?”라고 홍순목에게 물었다는 기록이 홍순목이 쓴 『對山集』 서문에 함께 수록되어 있다.

54) 이때 설악산도 유람하였는데, 설악산 흔들바위 옆 계조암 암벽에는 조만영과 강진을 비롯하여 함께 유람하였던 趙秉夔, 李審渠, 洪義福 등의 이름도 각자되어 전한다.(권혁진, 『설악인문기행 2』, 산책, 2017, pp.57-62)

55) 조인영, 「洗劍之行 值對山滯直 悵未作伴 今見伊日寄懷之作步韻」, 『雲石遺稿』 권3.

강진은 조인영보다 25살 연하였기에 풍양 조씨 일문과의 인연은 후대에까지 이어져, 조만영의 아들로 조인영에게 출계한 趙秉夔가 금강산을 유람할 때 강진은 동행하였거니와, 조만영의 아들인 趙秉龜, 조인영의 사위인 金學性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다.<sup>56)</sup>

강진의 문집인 『대산집』의 간행도 풍양 조씨 가문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 “운석공의 사손인 직학사[趙寧夏]가 운석유고를 간행하고, 이어서 대산의 시를 간행하려고 생각한 것은 옛날의 우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대산이 운석공을 만나 저승에서나 이승에서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sup>57)</sup>라는 기록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 4. 국경을 초월한 교유 - 劉喜海, 比丘林

조인영은 관직생활을 하기 이전인 1815년(순조 15) 겨울, 冬至副使로서 사절단을 이끌던 再從兄 趙鐘永(1771~1829)을 따라 34살에 자제군관의 자격으로 수행하였다. 이듬해 봄에 북경 琉璃廠 책거리에서 劉喜海(1794~1852)를 만난다. 유희해는 字가 燕庭, 또는 吉甫이며, 청대 대표적인 금석학자이자 藏書家이기도 하다. 몇 년 전 부친 김노경을 따라 연경에 갔던 김정희와 이미 인연을 맺었던 유희해는 김정희를 통해 조인영에 대한 말을 들었기에 두 사람은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된 벗처럼 깊은 우의를 나눴다.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의 금석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던 유희해에게 조인영은 자신이 가지고 갔던 조선 금석문의 탁본 수십 종을 모두 선물하였고, 유희해도 조인영에게 중국의 탁본 작품

56) 김학성이 『對山集』의 서문을, 조만영의 손자인 趙成夏, 조인영의 손자인 趙寧夏가 각각 발문을 썼는데, 선대인 조만영·조인영 형제와의 인연이 모두 거론되어 있다.

57) “雲石公嗣孫直學士鈔梓雲石遺稿 擬繼刊對山之詩 重舊誼也 對山之遇雲石公將終始於幽明 豈偶然乎哉”(김학성, 『對山集』 서문)

을 선물하였다.<sup>58)</sup> 두 사람의 친분은 귀국한 후에도 계속 이어져, 조인영은 수차례에 걸쳐 서신과 함께 여러 탁본 자료와 자신이 편찬한 『海東金石存攷』 한 책을 보내주었다. 이 책을 받은 유희해는 자신의 주석을 추가하고 조인영이 誤記한 글자는 일일이 교정하여 다시 조인영과 추사의 동생인 김명희에게 보내 계속 수정과 증보를 요청하였다. 또한 책에 발문을 써 넣기도 하였는데, “丙子(1816)년 봄에 都門에서 조선의 趙義卿(조인영)을 만났다. 海東의 金石에 대해 묻자 여행 가방 속에 있던 것을 다 털어 주었다. 이 후에도 편지가 올 때면 꼭 보내준 것이 있었다. 3~4년이 지나자 수십 종이나 되었다. … 古人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게 된 것은 참으로 해외에 있는 훌륭한 벗의 덕택이다.”라고 기록하여 귀한 자료를 보내준 조인영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였다. 이후로도 유희해는 조인영이 보내준 풍부한 탁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海東金石苑』이라는 조선 금석문 연구서를 편찬하였다.<sup>59)</sup>

조인영은 북경에 체류하는 동안 청나라 학자뿐만 아니라 러시아 학자와도 교류하였다.<sup>60)</sup> Nikita Yakovlevich Bichurin(1777~1853, 러시아어로는 Н. Я. Бичурин, 한자로는 比丘林으로 음譯된다.)은 러시아에서 東方學과 漢學의 개창자이자 朝鮮學의 토대를 세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동방정교의 선교사이자 학자의 신분으로 14년간 북경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주위 여러 소수민족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중국에 사신으로 왔던 조선의 관원 및 학자들과의 교류도 빈번하였는데, 그들에 대해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가졌다. 1829년에 쓴 『北京志』에는 “매년 중국 조정에 공물을 진

58) 조인영, 「書李北海麓山寺碑後」, 『雲石遺稿』 권10, “余少之燕 與劉燕庭喜海遊 其從祖塲謚文清 其曾祖統勳謚文正 其人蓋名家子 文翰又極佳 嘗遺余以李北海麓山寺碑一帖 今三十年矣 偶於舊篋中檢而閱之 雖多缺字 儘精搨也.”

59) 박철상, 「추사 김정희의 금석학 연구 : 역사고증적 측면을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2011, pp.48-54.

60) 조인영이 比丘林과 교류하였던 기록은 계명대학교 김수경 선생님께서 알려 주셨다.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다.

상하러 오는 조선인들은 高麗館(혹은 朝鮮館이라고도 부른다.)에 머문다. 사신들이 머무는 공간은 건물이 초라하고 누추하여 숙박하는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북경에 온 조선인들은 모두 방안에 풀로 만든 자리를 깔고 겨울을 보내는데, 심지어 수석 사신이 머무르는 방도 분리된 반 칸 방에 불과하다.”<sup>61)</sup>라고 조선 사신들이 받은 열악한 대우에 대해 사실대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자제군관의 신분이라 공적인 업무가 특별히 없었던 조인영은 比丘林과 친분을 맺게 된다. 당시 조인영이 머물던 朝鮮館과 比丘林이 머물던 俄羅斯館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漢語 뿐만 아니라 만주어, 조선어 등도 이미 어느 정도 익혔던 比丘林이기에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타국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공통된 話頭로 하여 만나면 새벽이 밝아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밤을 새워 시를 주고받거나 학문을 토론하면서 친분을 쌓아갔다. 1817년 1월 조인영은 일정에 따라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송별시를 지어 주며 작별을 아쉬워하였다. “내가 아라사의 和先生과 玉河館에서 만났는데, 이별을 앞두고 시 하나를 주어 異域에서 사귀는 것에 대해 증표로 삼는다.”라고 서문을 쓰고, 아래와 같이 시를 지었다.

相去數萬里  
同在一天下  
他日相思際  
只應御風馬

서로 떨어진 거리가 수만 리이지만  
똑같이 하나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지.  
훗날 서로 그리워질 때면  
다만 풍마만 탈 뿐이리라.<sup>62)</sup>

61) “每年向中國朝廷進貢的朝鮮人住在高麗館(或者叫朝鮮館) 使館建築簡陋 住宿條件惡劣 來京的朝鮮人都在室內搭草席過冬 甚至首席使臣所住地方也不過是隔開的半个房間” 張建華, 『近世俄國文獻關於朝鮮的記載和初認』, 『史學史研究』, 2010年 第4期 재인용.

62) 風馬는 風馬牛不相及의 준말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조인영이 지은 위의 시는 『雲石遺稿』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현재 러시아과학원 동방학연구소 성피티스버그분소의 기록문서보관실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sup>63)</sup> 현재 比丘林이 조선의 사신들과 교유한 직접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인영과 교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위의 기록들은 조선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고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이전에 두 나라 학자들의 교유를 확인시켜 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Ⅲ. 19세기 雅集의 공간 墨溪山莊

『운석유고』를 비롯하여 조인영과 교유한 인물들의 문집에는 ‘목계산장에서 연회를 벌이다’, ‘목계산장에서 피서를 하다’ 등 ‘墨溪山莊’, 또는 줄여서 ‘墨莊’이란 용어가 빈번하게 보인다.

목계산장은 풍양 조씨, 특히 조만영의 별장이다.<sup>64)</sup> 이곳에는 여러 개의 부속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문헌으로 확인이 되는 것은 老人亭, 多種樓, 耆英館, 儵魚閣 등이다.<sup>65)</sup> 이 가운데 老人亭은 목계

63) 李偉麗, 『尼·雅·比丘林及其漢學研究』, 學苑出版社, 2007, p.25.

64) 풍양 조씨 집안의 별장은 목계산장 이외에 도성 밖에도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병현의 『成齋集』에 수록된 연보에 따르면 40세인 1830년(순조 30) 7월에 申允祿의 誣訴를 당해 도성을 나와 龍湖의 小亭에 우거하였는데, “雲石相公의 別墅”라는 주석이 보인다.(七月乙酉 三十日 被正言申允祿誣疏 出城寓居龍湖【雲石相公別墅】小亭) 또한 이 별서에서 조인영이 여러 인물들과 연회를 베풀면서 쓴 시인 「東巖別墅 與李希谷止淵·海谷紀淵·權彝齋敦仁·族姪羽堂秉鉉·李石見復鉉·趙芝園秀·姜對山潛 錢秋 壬辰」라는 시가 전하기도 한다.

65) 강진이 쓴 「宿玉山浦 臥念趙忠敬公平昔眷愛 淚漣漣漬席 遂起走筆 可謂長歌之甚也」(『對山集』 권2)의 주석에 “다종루와 노인정은 모두 공의 樓榭의 명칭이다.(多種樓·老人亭 俱公榭名)”라는 주석과 朴允默이 쓴 「領敦寧府事石崖趙公萬永入耆社日識喜」(『存齋集』 권18)의 함련에 “多種樓前間日月 耆英館裏

산장의 대표적인 건물로, 후대의 문헌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등 한양의 대표적인 누정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노인정은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남산 북쪽 기슭에 터만 남아 있고, 주위 바위에는 ‘趙氏老基’라는 암각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sup>66)</sup>

李壩이 쓴 「老人亭記」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종남산의 치솟은 절벽 봉우리 가운데 가장 외진 곳이 紫閣峰이다. 자각봉 아래는 첩첩 산길이 빙빙 감돌고 있는데, 형세가 마치 용기를 세워놓은 것 같다. 산이 내달리다 가파른 비탈이 되니, 길을 따라 위태로운 곳으로 옮겨 가다 보면 열 걸음에 백 번은 꺾인다. 꺾이는 곳마다 정신이 피로해지고 지치는데, 그런 후에야 산이 조금 완만해지고 땅이 조금 평평해진다. 왼쪽으로는 聽流를 끼고 오른쪽으로는 白賁를 끌어당기며, 南營을 등지고 있다. 활 모양으로 높이 솟은 곳은 언덕이고, 입을 벌린 것처럼 깊숙한 곳은 골짜기인데, 거기에 몇 무 정도의 넓은 터가 있으니, 이른바 노인정이라고 하는 곳이다. 이곳은 尙書 趙公의 별장이다.<sup>67)</sup>

위의 자료를 통해 노인정이 남산 깊은 골짜기 안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인정으로 가는 길 왼쪽에는 聽流, 오른쪽에는 白賁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둘은 모두 풍양 조씨 가문이 소유 하였던 건물의 명칭이다. 聽流堂은 豊原府院君 趙顯命의 옛집으로, 조현명이 세운 歸鹿亭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하며, 김장생의 증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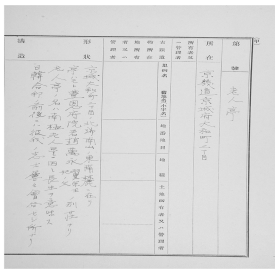
老神仙”라는 시어가 보이며, 조인영이 쓴 「僛魚閣記」(『雲石遺稿』 권10)에 “백씨인 석어선생이 목계산장 근처에 물길을 가로질러 누각을 세우고 편역을 ‘조어’라고 매달았으니, 대개 호랑의 뜻이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66) 심경호,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 『民族文化研究』 31집, 1998, p.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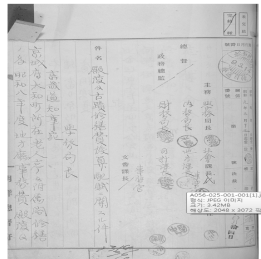
6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고문서집성 11 -장서각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終南之陡絶最僻者曰紫閣 紫閣之下 山回路轉 勢如建瓴 山走峻坂 路蹻危遷 十步百折 折者疲倦 然後 山稍夷 地稍平 左挾聽流 右控挹白賁 負南營 隆然高者爲邱 呀然深者爲谷 方闊數畝焉 所謂老人亭 而此尙書趙公之別墅”

金萬均의 사위이기도 한 趙仁壽의 호가 白賁堂인 점으로 보아 그의 정자의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sup>68)</sup> 따라서 노인정이 위치하고 있던 남산 북쪽 지역은 풍양 조씨 가문의 도성내 터전이자 세거지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이 국권을 상실한 후 조선총독부에서 우리나라 고적이나 유물을 조사하여 정리한 등록 대장에도 노인정의 위치와 명명한 유래, 한일합방 전후로 조선과 일본간의 회담이 몇 차례에 걸쳐 열렸던 장소라는 사실과 함께 조만영의 별장이라는 기록이 기재되어 있고, 노인정을 수리 보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와 노인정의 조망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고적 유물 등록 대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노인정 수선 공사를 위한 관계 문서 일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누정은 원래 풍류를 즐기고 주변 경치를 감상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로, 예로부터 자연 경관이 뛰어난 산과 강에는 여지없이 많은 누정이 세워졌으며 현재도 복원이나 신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조선의 중심지였던 한양은 한강변과 도성안의 4대산(北嶽山, 仁王山, 南山, 駱山)을 중심으로 수많은 누정이 세워졌다.<sup>69)</sup>

68) 이훈, 앞의 논문, p.27, p.10.

그런데 한양에 조성된 누정은 누정의 위치와 누정을 세운 주체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조선 전기에는 한명회의 狎鷗亭 등 몇몇 권신의 개인적인 공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왕이나 종친들에 의해 조성되었다. 또한 그 위치도 한강변을 따라 집중적으로 조성되었고, 기우제나 수군의 習陣 참관, 중국 사신의 접대 등 국가적인 행사에 활용되거나 국왕을 비롯하여 관료 대신들이 경관을 감상하고 뱃놀이를 하는 등 개인적인 연회의 장소로도 활용되었다.

조선후기, 특히 18세기 중엽부터 다시 누정의 건립이 활기를 띠게 되는데, 이전 시대와 다른 점은 한강변보다는 산속에 자리잡는 정자가 늘어났고, 누정을 세우는 주체도 왕이나 종친보다는 권세가 등 개인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인왕산의 동쪽 산자락과 백악산의 서쪽 산자락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壯洞에는 많은 수의 누정이 입지하였는데, 이곳은 안동 김씨의 도성내 근거지이기도 하다. 또한 도성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산인 南山의 북쪽 기슭인 청학동, 남창동, 회현동 등에도 많은 수의 누정이 들어서게 되었다.<sup>70)</sup>

혈연과 당색으로 연결된 정치집단이 정치적인 모의나 담합을 위한 장소로 악용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누정은 학문을 토론하고 시를 읊거나, 거문고를 타고 바둑을 두는 등 상류층의 연회장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렇기에 예로부터 누정에서의 모임을 雅集이라고 표현하였다.

본 장에서는 조인영이 여러 벗들과 교유함에 있어 만남과 유흥의 장소로 많이 활용되었던 목계산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69) 궁궐과 廟宮 내의 누정을 제외하고 한강변과 도성 4대산에 건립되었던 누정 가운데 각종 문헌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곳은 161개라고 한다.(임의제, 「朝鮮時代 서울 樓亭의 造營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학연구』 3집, 1994.)

70) 鄭元容의 누정인 花樹樓도 이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溪樽醒易得  
石枕夢難分  
庭豁堪邀月  
簷虛爲貯雲  
道機閒處見  
天籟靜時聞  
滿洞栽蒼翠  
如何漏此君

시냇가에서 마시는 술은 쉽게 깨고  
돌 위에서 잠을 자면 꿈과 구분이 안된다네.  
뜨락이 행하니 달을 맞이할만하고  
처마가 빈 것은 구름을 잡아두기 위함이라네.  
도의 기미는 한가로운 곳에서 볼 수 있고  
하늘의 소리는 고요할 때 들리는 법.  
골짜기 가득 푸른 나무 심으면서  
어찌 대나무를 빠트리랴.<sup>71)</sup>

위의 시는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목계산장에서 어느 봄날 밤에 지은 작품으로, 『운석유고』가 시대순으로 편차된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수련에서는 속세를 떠나 산속에서 즐기는 음주의 흥취와 편안한 여유를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이어 함련에서는 환한 달빛과 구름이 시인의 운치와 흥을 돋게 한다고 하였다. 경련에서는 道와 理致는 책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번잡함이 없는 청정한 상태에서 생각하면 저절로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조인영에게 있어 목계산장은 치열한 정계를 벗어나 잠시나마 긴장을 풀고 심신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그런데 목계산장은 풍양 조씨 일문만의 공간이 아니었다. 조만영·인영 형제의 초청을 받은 인물들이 수시로 모여 연회를 즐겼고, 후대로 가면 이들 형제의 초청도 없이 시인묵객들이 독자적으로 드나들면서 유흥과 휴식을 즐겼다. 정원용은 어느 해 늦여름에 조만영·인영 형제, 權敦仁, 金履陽 등과 목계산장의 노인정에 모여 연회를 즐기며 장편의 시를 지었는데,<sup>72)</sup> 그 시를 탁본한 자료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墨溪山莊分韻」이란 자료로 소장되어 있다.

71) 조인영, 「墨莊春夜」, 『雲石遺稿』 권2.

72) 정원용, 「季夏日 與石厓雲石彝齋金淵泉尙書履陽諸公 會墨溪老人亭 分韻得清字」, 『經山集』 권3.



「墨溪山莊分韻」 탁본(장서각 소장)

특히 조수삼은 피서를 목적으로 목계산장을 찾는 등 계절에 상관없이 이곳에 들러 며칠씩 머무르기도 하였거니와 목계산장과 관련된 시를 가장 많이 남겼다. 아래에 몇 편의 작품을 인용해 본다.

少年樓上老人亭 소년루 위의 노인정은

秋葉春花不掩扇 가을, 봄 언제나 문을 닫아걸지 않네.

一代風騷成卷軸 한 시대의 시인묵객들이 지은 시문이 책을 이루니

四時涼暖適居停 서늘할 때나 더울 때나 사계절 모두 머무르기 적당하다네.<sup>73)</sup>

宰相多清福 재상은 맑은 복이 많아

城闌買好山 도성 경계에 좋은 산을 사셨네.

肩輿時獨往 가마 타고 때때로 홀로 와서

掌軸有餘閒 바쁜 업무 중에도 여유와 한가로움을 즐기셨네.<sup>74)</sup>

客子坐聞風嶺嘯 나그네는 앉아서 고개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소리 듣고

樵童來看石床棋 나무하는 아이는 와서 돌 위에서 바둑 두는 것을 본다네.

餐霞不重廚盤設 자연을 만끽하니 별도로 음식 장만할 필요 없고

待月先將枕簟移 달 떠오르기 전에 먼저 침구를 옮긴다네.

城裡終南非遠舉 도성안에 있는 종남산은 먼 거리도 아니니

73) 조수삼, 「輓豐恩府院君石厓趙忠敬公」 12수 중 3번째 작품의 수련과 경련, 『秋齋集』 권6.

74) 조수삼, 「春仲遊老人亭 五宿而歸」의 수련과 경련, 『秋齋集』 권3.

平泉輞水未爲奇 평천과 망수도 기이할 것이 못되네.<sup>75)</sup>

단풍 든 가을이든 꽃 만발한 봄이든 언제나 열려 있었던 목계산장은 조만영·인영 형제가 모두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연회의 장소 또는 피서의 장소로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1853년 李裕元은 풍양 조씨 일문을 비롯하여 정원용의 아들 鄭基世 등 20여명의 사람들과 목계산장에서 모임을 갖고 王羲之의 蘭亭 모임을 본떠 續蘭亭會라고 명명하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려 남기기도 하였다.<sup>76)</sup> 조만영의 아들인 趙秉夔도 姜潛을 비롯한 벗들과 목계산장을 찾아 가을을 즐기기도 하였거니와,<sup>77)</sup> 비 내리는 목계산장을 찾아 아래와 같이 시를 지었다.

老人亭上臥	노인정 위에 누우니
此地卽吾居	이곳이 나의 거처로구나.
泉洌堪爲酒	샘물 차가우니 술 빛을만하고
山深可讀書	산이 깊으니 책을 읽기 좋도다.
倚欄酣化蝶	난간에 기대니 나비인지 헛갈리고
迎客愧無魚	손님을 맞이하여 물고기 없음이 부끄럽구나.
願得巖間士	원컨대 산속에 숨어 사는 선비와 같이
逍遙共結廬	움막 짓고 함께 소요하리라. <sup>78)</sup>

『智水拈筆』의 저자로 유명한 洪翰周(1798~1868)도 노년에 목계산장의 노인정에 머물면서 시를 남겼는데, “방에는 먼지 가득한 거문고와 바둑 판이 있고, 문에는 찾아오는 손님 없어 걸상만 부질없이 남아 있네. 공과 같은 부귀함으로도 도리어 이와 같으니, 우리들의 풍류는 몇 번의 가을이나 가능할까.[室有琴棋塵已澆, 門無車馬榻空留. 如公富貴還如此, 吾

75) 조수삼, 「老人亭避暑 十一首」의 첫 번째 작품의 앞부분, 『秋齋集』 권6.

76) 이우원, 「續蘭亭會」, 『임하필기』 권25.

77) 조병기, 「秋夜墨莊與對山諸人共賦」, 『小石遺稿』 권1, 규장각 소장본.

78) 조병기, 「墨莊雨中」, 『小石遺稿』 권1, 규장각 소장본.

輩風流定幾秋.]”<sup>79)</sup>라고 하여 조만영 형제의 죽음 이후 목계산장을 찾는 이가 별로 없어 삭막하게 된 것을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이후 노인정은 풍양 조씨 가문에서 여흥 민씨 가문으로 주인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1894년 동학농민군의 봉기로 대군을 출병시킨 일본측이 조선의 철병 요구를 거부하고 조선의 내정 개혁을 요구한 회담을 제안하였는데, 그 회담장소가 바로 노인정이었다. 이 회담을 일명 ‘노인정회담’이라고 하는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노인정회담’ 항목에 “7월 10일에 서울 남산에 있는 민영준(閔泳駿)의 별장 노인정에서 오토리(大鳥圭介) 공사를 대표로 일본과 회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구한말 유명인사인 金澤榮, 李建昌, 張之琬 등도 노인정을 찾아 시를 남겼는데, 조만영 형제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어 이 시기에 이르면 이미 풍양 조씨 가문의 별장이었다는 관념이 희박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목계산장, 특히 노인정은 풍양 조씨 일문만이 독점하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시인묵객들이 들러 풍광을 감상하며 詩酒를 즐기고, 거문고와 바둑 등 여가생활을 향유하는 장소로 많이 활용되었던 바, 19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문화생활과 유희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하겠다.

#### IV. 결론

지금까지 조인영이 교유한 인물과 교유장소로 활용된 목계산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인영은 19세기 조선의 세도정치를 논할 때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정치가인 동시에 금석학에 조예가 깊은 학자이자 시문에도 능한 문학가

79) 홍한주, 『宿墨莊老人亭有感 次壁上韻』의 경련과 미련, 『海翁藁』 권5.

였다. 그는 김정희 및 성대중 부자와의 교유를 통해 성리학 일변도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학문에도 관심을 가졌고, 현실에 대해 유연한 사고방식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이지연, 정원용 등과는 정치적인 입장을 같이 하는 동반자로서 안동 김씨의 전횡을 막는 데 힘썼다. 아울러 조수삼, 강진 등 중인 신분의 시인들과도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어 詩友로 대하며,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서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젊은 시절 중국을 여행할 기회를 얻어 청나라의 금석학자인 유희해와 인연을 맺어 조선의 금석문을 청나라에 전파시켰다. 마지막으로 당시 북경에서 근무하던 比丘林이란 러시아 학자와도 교유하였는데, 두 사람의 교유는 현재 남아있는 기록으로 볼 때 조선 학자와 러시아 학자와의 교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인영이 여러 인물들과 교유하였던 장소인 목계산장은 남산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풍양 조씨 가문의 별장인 동시에 당시 여러 문인이나 관리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연회와 유흥을 즐겼던 대표적인 도성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參考 文獻>

- 姜 潛, 『對山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金正喜, 『阮堂全集』(한국문집총간 301집)  
朴允默, 『存齋集』(한국문집총간 292집)  
成海應, 『研經齋全集』(한국문집총간 273~279집)  
李裕元, 『林下筆記』(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임하필기』, 1999.)  
鄭元容, 『經山集』(한국문집총간 300집)  
趙秉夔, 『小石遺稿』(규장각 소장본)  
趙秉鉉, 『成齋集』(한국문집총간 301집)  
趙秀三, 『秋齋集』(한국문집총간 271집)  
趙寅永, 『雲石遺稿』(한국문집총간 299집)  
洪翰周, 『海翁藁』(한국문집총간 306집)  
趙寅永 외, 『雲雪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풍양조씨세보』, 풍양조씨대중회, 200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고문서집성 11 - 장서각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구슬아, 「조선 후기 문인들이 明代 文壇 경향을 파악하는 한 방법: 明代 散文選集 『明文奇賞』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3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3.
- 권혁진, 『설악인문기행 2』, 도서출판 산책, 2017.
- 김명숙, 「운석 조인영의 정치운영론」, 『朝鮮時代史學報』 11, 조선시대사학회, 1999.
- 김영죽, 「秋齋 趙秀三의 燕行詩와 外夷竹枝詞」,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8.
- \_\_\_\_\_, 「對山 姜晉의 삶과 詩 - 檢書官 및 外職시절의 시를 중심으로」, 『漢文古典研究』 26, 한국한문고전학회, 2013.
- \_\_\_\_\_, 「19세기 檢書官 對山 姜潛 詩자료에 관하여 - 자료검토와 교유관계를 중심으로」, 『韓國漢文學研究』 52, 한국한문학회, 2013.

- \_\_\_\_\_, 「秋齋 趙秀三, 對山 姜潛, 冬郎 韓致元の 詩로 맺은 忘形之交」, 『漢文古典研究』 3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5.
- 박철상, 「추사 김정희의 금석학 연구 : 역사고증적 측면을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2011.
- 손혜리, 「靑城 成大中の 文學活動과 文學論」,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0.
- 신익철, 「梅社 동인의 매화시 창작과 비평 : 18세기 한시 비평의 일단」, 『한국문학연구』 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2.
- 심경호, 「당벌의 장에 핀 매화 - 조재호와 『매사오영』」, 『한국한시연구』 4, 한국한시학회, 1996.
- \_\_\_\_\_, 「조선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 『民族文化研究』 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8.
- 안외순, 「추사 김정희와 윤상도 옥사, 그리고 정치권력」, 『東方學』 28,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3.
- 이 훈, 「동해 조종진의 시문학 연구」,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2015.
- 임의제, 「朝鮮時代 서울 樓亭의 造營特性에 관한 研究」, 『서울학연구』 3,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4.
- 李偉麗, 『尼·雅·比丘林及其漢學研究』, 學苑出版社, 2007.
- 張建華, 「近世俄國文獻關於朝鮮的記載和初認」, 『史學史研究』 2010年 第4期.

## Abstract

*Unsuik Cho In-Young's aspect of social intercourse and  
Mukgye Sanjang / Kim Geun-tai\**

This study examines people who Unsuik Cho In-young promoted social intercourse with, and Mukgye sanjang which was used as a place to build their companionship.

Cho In-young was one of the leading figures during the era of politics by in-powers in the 19th century Joseon. He was an important person in political history, a scholar and literary man who was well versed in epigraphy as well as proficient in poetry and prose. He devoted himself to diverse disciplines escaping from the narrow-minded thinking that only Neo-Confucianism should be revered, through the social intercourse between Kim Jeong-hui, Seong Dae-jung and Seong's son. With Lee Ji-yeon and Jeong Won-yong who had the same political stance, he strived to prevent arbitrary powers of the Kim clan of Andong. In addition, beyond his status and age he made fellowship with middle class poets such as Cho Su-sam and Kang Jin, and served as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supporter. In his younger years, he went to Beijing as a member of delegations, established a relationship with Liu Xi-hai, an epigraphist of the Qing Dynasty, and then spread the Epigraph on the Stone of Joseon to Qing Dynasty. He was very active in social intercourse, forming a friendship with a Russian scholar, Bichurin, who worked in the Qing Dynasty. This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earliest examples of exchanges between Joseon scholar and Russian scholar in view of the records so far.

The Mukgye sanjang, where Cho In-young promoted good relations and social intercourse with many people, was located in the north of Namsan Mountain. This sanjang not only was a villa belonged to the Jo clan of Pungyang, but also had significance as a typical cultural space of the capital, because a number of writers and officials visited there frequently to enjoy banquets and entertainment.

**【Key words】** Cho In-young, Epigraphy, Politics by in-powers, Kim Jeong-hui, Liu Xi-hai, Bichurin, Mukgye sanjang

투고일 : 11월 16일, 심사완료일 : 12월 4일, 게재확정일 : 12월 4일

\* Lecturer of Kangwon Univ. / neoktkim@naver.com